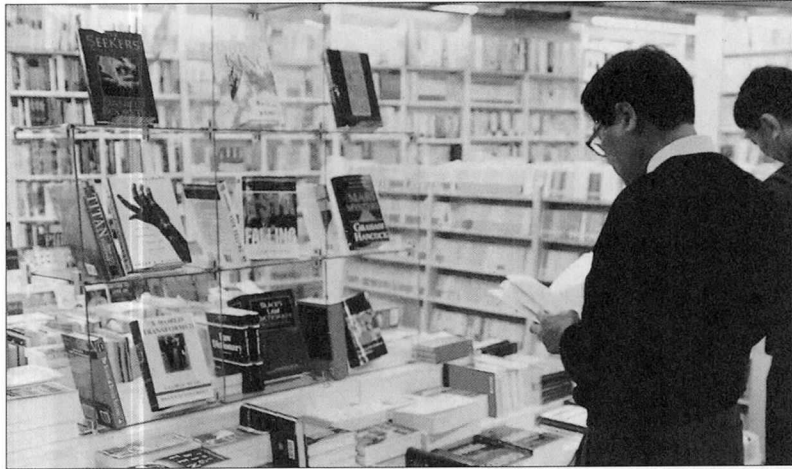


느닷없이 몰아친 저작권료 '부가세' 태풍

면세조치 등 철회요구 탄원서 제출



최근 외국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소급징수로 출판계가 부담을 안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울고 싶은 사람 뺀치는 격’. 요즘 출판계에 꼭 들어맞는 말이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느닷없이 날아든 ‘외국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소급징수’ 통고 때문.

부가세 태풍에 근심 태산

불황으로 움작달짝 못하는 출판계에 부가세 태풍까지 몰아치자 근심이 태산이다. 부라부라 출판단체에서 사태파악과 진화에 나섰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와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언호)는 감사원장에게

탄원서와 진정서를 접수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최근 각 출판사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외국에 지불한 번역서의 로열티와 인세 지급현황을 제출하고 그 금액의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날아든 것. 부가세법 32조 1항에 따라 출판사가 외국에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이다. 더구나 1996년부터 소급적용하겠다는 것. 이제까지 아무런 사전 홍보나 안내 한마디 없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부가세법에 따르면, 외국 저작권자가 개인일 경우는 부가세가 면세되지만, 법인일 경우 법인세와 부가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세조약이 체결된 나라는 약 10~15% 내외, 미조약국은 2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조세조약의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료 총액의 10%를 부가세로 징수하거나 대리납부해야 한다. 이를 96년부터 소급적용하면 각 출판사들은 최소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추가분을 지불해야 한다.

사실 부가세 문제는 지난해 여름부터 불거져 나왔지만 유아무야돼왔다. 정부의 출판계 지원과 추가과세는 모순이라는 지적 때문. 하지만 감사원에서 다시 조사해 징수하라는 지적이 일자 잠자던 칼날을 빼들었다.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아 현재 진행중인 외국과의 저작권 계약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탄원서 제출 등 철회 요구

이에 따라 출협과 출판인회의에서 발벗고 나섰다. 출협은 나춘호 회장이 한승헌 감사원장을 만나 출판계의 현실을 설명하고 선

처를 호소했다. 거래상대방이 법인이라도 실질적인 저작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가세를 면제해줄 것, 5년 소급징수의 부당성을 들어 올해부터 징수하거나, 저작권의 거래를 학술연구용으로 인정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출판인회의도 지난달 23일 한승헌 감사원장에게 탄원서를 정식 제출했다. 이번 사태가 세정당국의 세원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거의 사문화되다시피했던 조항을 아무런 경과조치나 기간의 설정 없이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부가세 소급징수 조치는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출판계는 이번 사태가 전향적으로 신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부가세 징수가 정식 집행되면 출판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료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일. 더구나 저작권 체결 과정에서 법인이체가 아닌 개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번잡한 과정을 더 거치거나 굴욕적인 처사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박천홍 기자

학재의 출간

‘만학의 제왕’ 《주역》의 현대적 해설서 《대산주역강의》(전3권)

“나에게 해를 조금 더해 오십만 더 살아서 주역을 공부할 수 있다면 큰 허물은 없을 것을 그랬다.” 《논어》술이(述而)편에 나오는 대목으로, 당시 고회의 공자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다. 《공자가어》에는 “공자가 노년에 주역을 좋아해서 가족근으로 엮은 주역을 세번 떨어뜨렸다”고 기록돼 있다. ‘위판삼절(韋編三絶)’의 고사가 나온 유래다. 《주역》의 가치와 심오함을 입증하는 사례들이다. 이처럼 동양 최대의 경전으로 손꼽히는 《주역》은 예로부터 ‘만학의 제왕’으로 일컬어져왔다.

19세에 주역학에 입문, 《주역》연구와 강의에 50년을 바친 대산 김석진옹의 필생의 역저 《대산 주역강의》(전3권)가 나왔다. 이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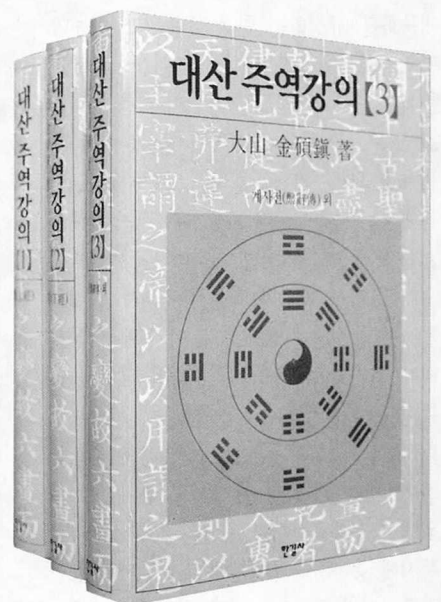
은 지난 11년 동안 서울과 지방에서 펼친 주역강의를 총망라한 것. 제1권은 주역 입문편과 주역상경(30괘)으로 주역의 기초이론과 함께 자연적이고 선천적인 이치를 담았다. 제2권은 주역하경(34괘) 해설편으로 인사적이고 후천적인 의미를 풀이했다. 제3권은 계사전·설괘전·서괘전·잡괘전의 해설편으로 공자의 역경철학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소수의 전문학자에게만 알려졌던 《주역》을 한글세대의 눈높이에 맞추었다는데 그 미덕이 있다. 매 페이지마다 괘의를 밝히고 본문강의에서는 원문 하나하나에 발음과 토를 달고 강의와 총설을 붙였다. 예컨대 ‘중천건(重天乾)’의 ‘건원형이정(乾元亨利貞)’을 춘추추동의 사시, 목화금수토의 오행,

동남서북중앙의 사방, 인의예지신의 오상과 연결시켜 “하늘은 광대무변하므로 크게 형통한 반면 지공무사하므로 바름을 굳게 지켜야 이로운 것”이라고 해설한다.

또한 이 책은 주자의 학통을 벗어난 독창적인 주역해설로 주역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조선시대부터 송의 정이천과 주희의 주역해설을 표준으로 삼아 오고 다른 학설은 사문난적으로 매도한 학통을 뛰어넘어 《주역》의 패상과 본문에 충실했다. “주역을 이해하려면 먼저 패상을 잘 살피고 나서 패사와 효사를 음미해야 한다”는 말 속에 이것이 잘 드러난다.

김석진옹은 지금이야말로 주역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라고 역설한다. 지금의 현실은 먹고살기는 좋아졌어도 늘 공포와 불안감에 떨어야 하는 시대다.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된 것은 우리의 정신도덕적 문명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적인 지주이자 고도의



정치적 문명이 담긴 《주역》으로부터 정신적 자산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박천홍)

한길사/A5신678면 내외1/2권 25,000원, 3권 22,000원